

삶의 구체성과 보편성 담긴 철학동화

극작가 장성희씨가 뽑은
펠릭스 리더의 《웃음》



“어른을 위한 철학동화라고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책이죠.”

몇 달 전 극작가 장성희씨(35)는 우연히 한 연극평론가의 글에서 《웃음》(펠릭스 리더 지음, 차경아 옮김, 예문)의 존재를 알게 됐다.

“악마에게 웃음을 팔아 부를 얻은 한 소년이 웃음을 되찾는 과정을 그렸다는 식의 소개였죠. 두어줄 정도의 간단한 언급이었는데, 화살이 꽂히듯 그 글귀가 제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그는 그 길로 서점에 달려가 먼지가 잔뜩 앉은 채 서고 깊숙이 숨어 있던 그 책을 찾아냈다.

“어른을 위한 철학동화라고나 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책이죠.”

책속의 소년은 천진한 웃음 때문에 주변에서 사랑받았던 인물.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하며 찾아간 경마장에서 악마를 만나 웃음을 팔게 됐다. 모든 내기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소년이 뒤늦게 웃음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고행은 시작된다.

“얘기 구조는 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구조안에 삶의 구체성과 보편성이 담겨 있어요. 깊은 철학적 사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동화적 언어로 풀어낸 점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특히 인형극장에서 아이들이 연극을 보며 웃는 장면에서 그는 예기치 않은 수확도 얻었다. 연극이 인간에게 그렇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동받은 것이다.

“연극의 의미를 제 가슴에 다시 쟁여두게 됐죠.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내가 쓰는 희곡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깐요. 우리 연극 현실은 열악하지만 말입니다.”

후반부에서 소년은 인형극장을 갖고 싶어한다. 그는 이 소년이 ‘어떤 부와 명예보다 낫고 작은 인형극장 하나를 선택’ 한 것에 크게 감동받았다.

“소년은 이웃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데서 오는 행복을 알았던 겁니다. 사실 인간이 모든 욕심을 버리고 가장 자유로울 때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웃음이지요.”

199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극작활동을 시작한 그는 <길 위의 가족> (A.D. 2031 제3의 날들) 등 문체의식이 강한 작품을 발표해 왔다.

“이제는 저도 웃음을 줄 수 있는 무당이나 어릿광대가 되고 싶어요. 인간의 본원적 비극에 저항할 수 있는 무기는 웃음밖에 없거든요.” — 김정은 기자

내 책?

원고는 있는데
출간할 방법을 못 찾고 계시나요?
삶의 이야기는 풍부하한데
집필할 여유가 없어 망설이시나요?

당당하게 내 책을 만드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출판물의 모든 권리를 저자분에게 돌려드리는 사상 초유의 출판 시스템! 지금 전화 주십시오. 기획·집필에서 제작·영업까지. 책만드는공장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책만드는공장
출판집단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18-6
전화 02)406-8137 FAX 02)406-8138